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도서관 역할에 관한 사서 인식 연구*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Roles of Libraries in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at Christian Universities

이 성 숙 (Sung Sook Lee)**

구 정 화 (Joung Hwa Koo)(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plore university librarians’ perceptions and perspectives regarding the optimal roles of libraries, representative and collaborative organizations supporting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within Christian universities. The research is significant for providing foundational data to redesign library roles and develop re-training courses for librarians in better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at Christian universities.

To achieve the goal, the research employs a mixed method approach, combining online survey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librarians in Christian universities. The survey consists of 43 questions covering five topics: demographic data, main contents of character education in Christian univers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occupation, core roles of libraries in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obstacles in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and re-training course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Additionally, interviews with five representative and professional librarians are conducted to explore the backgrounds and reasons behind their selections and perceptions.

Based on the findings, the research suggests practical approaches, detailing the preemptive roles and services that Christian university libraries should undertake. It also recommends basic directions for librarians’ re-training courses to support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 2024년 2월 6일 접수, 2월 26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2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남대학교(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문헌정보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infolee@cnu.ac.kr

*** 한남대학교(Hannam University) 문헌정보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jhkoo@hnu.kr

should be provided. The research acknowledges its limitations and proposes further research topics for exploration.

Key words: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librarians' perception, roles of library, Christian university, Christian university library, librarians' re-training

I.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기독교대학의 사명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이웃과 사회, 세계에 봉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인성교육은 기독교대학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은성, 2017). 인성은 “사람의 성품 혹은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며(국립국어원, 2024), “한 인간의 사고와 행동, 관계성 등을 결정짓는 역동적인 특성으로서, 생래적이면서도 후천적으로 획득되 기도 하는 신체적, 정서적, 및 심리적 특성들의 총체”이다(이금만, 2011: 130). 인성교육에 대해 인성교육진흥법(법률 제17472호)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성교육의 8대 핵심덕목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온전한 인간이란 인지적, 신체적, 정의적, 사회적, 영성적 요소들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조용훈, 2016).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교육 8대 핵심덕목에는 인성의 영적인 부분이 간과되어 있는데, 이는 인성의 불완전성을 초래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성과 함께 인간의 영적인 부분도 함께 교육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인성교육이다(김정희, 2016).

기독교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정규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인성교육은 주로 교양교육과정의 영역 중 소양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대학은 인성교육 관심 제고를 위한 대학 우수 인성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인성교육은 대학 내 여러 소속 기관들이 협력해야 할 것이며, 대학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도서관의 역할은 대학도서관진흥법(법률 제18547호)을 기반으로 하며, 제7조(대학도서관의 업무 등)에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언급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므로, 교양교육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인성교육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도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제1차(2016-2018), 제2차((2019-2023)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의 추진 과제가 인성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며, 추진 과제 중 수업 및 학습 활동 지원 강화의 학생들의 기초소양함양프로그램 운영과 연구윤리학습은 인성교육과 관련이 깊다. 각 대학도서관들 또한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에 의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2019년 교육부가 수립한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제출한 2020년 시행계획 및 2019년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초소양함양프로그램 운영면

에서 많은 도서관이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이용재·이지옥, 2021).

그러나, 이들 대학도서관에서 운영해 온 서비스들은 대학의 인성교육과 어떤 연계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기독교대학의 설립 목표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부속기관인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학의 인성교육 목표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의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대학도서관에서의 독서프로그램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을 위한 대학 내 부속기관들과의 협력에 관한 논의들은 없었으며, 특히 대학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논의도 전무했다.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부속기관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대표 부속기관 중 하나인 도서관이 대학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인 사서들은 기독교 인성교육과 이를 지원하는 도서관역할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현단계 기초조사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기독교 진리에 기초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 인성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는 대표기관 중의 하나인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기초조사로, 이 연구로 밝혀진 결과들은 기독교대학의 인성 교육을 지원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역할을 재고하고 사서를 지원하기 위한 재교육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 하겠다.

2. 선행연구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이전 연구들은 크게 네가지 주제 범주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한 인성교육 방향에 관한 제언, 사례중심의 기독교대학에서 인성교육 방법과 방향에 대한 제언,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거나 그 측정 도구 개발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대학도서관과 관련하여 ‘독서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구체적으로, 먼저 기독교대학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각종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성교육에서 성경적 제로 베이스의 사고를 논하거나(이기훈, 2004), 코메니우스의 교육사상에 기반하여 지성, 덕성, 영성의 통합적인 교육을 제안하거나(박민수, 2009), 정서 조절의 다섯 가지 방략의 기독교 인성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성경의 가르침 및 사례와 연관지어 고찰하거나(주연수, 2015), 복음적 인성교육의 핵심 개념인 하나님 나라의 성육신적 영성 함양(최영근, 2016)을 강조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범주로는 특정 대학에서 실시한 인성교육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방안들을 제안한 연구들이다. 명지대학교 인성교육의 사례를 토대로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의 모델을 제안하거나(구제홍, 2007), 각 기독교대학들에서 실시한 인성교육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 연구(조용훈, 2016), 기독교 정신의 구현으로서의 인성의 개념을 살피고, 경성대학교가 인성교육 특성화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김충만, 2016), 명지대학교를 사례로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전략을 제시한 연구(정대경, 2019)들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사례 연구들 중에는 인성교육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진행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는데, 교양과 필수 과목인 '인성 및 직업윤리'를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거나(이종민, 2016), 계명대학교의 인성교육과목을 사례로 새로운 복음적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허도하, 2016). 또한, 기독교대학 인성교육 교양과목의 전략적 운영방식을 논의하고(이은성, 2017), 기독교 인성교육을 위한 융합형 기독교 인성교육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거나(박미라, 2020), 디자인 씽킹, 공감과 공동체의 헌신, 사회공헌적인 요소를 기독교 교양과목에서 융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윤성민, 2020), 소설 교육을 통한 기독교 인성 역량 함양의 가능성을 고찰하거나(조경덕, 2020), 기독교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김대인, 2021), 인성 함양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찰저널을 분석하여 교육적 통찰과 프로그램의 고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이성아, 2021). 인성에 대한 사변적이고 성찰적 이해에 초점을 둔 교과와 실제 사회적 상황 속에 성찰적으로 참여하는 이해에 초점을 둔 교과개발을 제안하거나(박향숙, 2022), 한남대학교 기독교 대학합창단 '실레스트'의 사례로 기독교 대학합창단을 통한 대학생들의 인성함양 방안을 고찰하고(오세홍, 2022), 노작과 서클 대화를 통한 기독교적 인성 수업을 개발한 연구(유승민·유재봉·안은경, 2023)도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채플에 관한 사례연구들도 다수 존재했다. 지·정·의 그리고 영적 영역에서 채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김소연, 2012),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기독교인성과의 연관성, 기독교인성 함양에 미치는 요인, 채플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인성과 복음화율과의 연관성을 고찰한 연구(한만오, 2016), 백석대학교 교목실의 채플을 사례로 기독교인성을 함양을 위한 방법을 제안한 연구(김대인, 2020)가 있다. 이렇듯 인성교육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각 대학에서 운영되었던 사례들을 분석함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며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측정도구에 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었다. 기독교 신앙인 격형성 훈련의 관점에서 인성 및 섬김의 훈련에 대한 기독교교육적인 효과를 검증한 연구(함영주,

2017), 기독교 교양 과목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연구(김춘이, 2017), 대학생용 기독교 인성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연구(김성원, 2019)가 대표적이다.

끝으로, 대학도서관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독서활동과 관련된 사례연구가 인성교육 사례연구만큼이나 주를 이루었다. 개별도서관에서 진행된 독서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 연구(고종호·정혜승, 2012; 2015; 박영철, 2014; 한가숙, 2014; 최영식, 2014; 양주성, 2014; 윤주영, 2015; 임보람, 2019; 권현지, 2021)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한편 대학생들에게 자기 성장적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달적 독서치료 주제목록’을 제시한 연구(이현실, 2010),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생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이경민, 2012),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통계치와 대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생 독자를 위한 대학도서관의 독서 지원 서비스인 ‘독서 프로파일링’ 서비스를 제안한 연구(정연경, 2017), 대학생의 독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대학도서관의 여가독서 실행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한 연구(정대근, 2023)도 다수 진행되었지만 모두 독서 그 자체만을 강조할 뿐 이를 인성 혹은 교양교육 지원과는 구체적으로 연결짓지는 못했다.

이상으로 기독교 인성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이론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인성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각 대학의 인성교육 사례를 토대로 인성교육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기독교 대학에서 인성교육의 실제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방향성과 실천 그리고 대학도서관에서의 독서프로그램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대학 내 여러 부속기관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부속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대학도서관 독서지도 관련 연구에서도 이것이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때 대학도서관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연구의 한계를 보충하고 대학 부속기관 중 하나인 도서관이 인성교육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사서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를 수행하여 이 결과에 기초하여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목적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대학 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법'과 '면담법'을 이용하여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 어떤 인식과 요구가 있는지 조사·분석하였다. 첫째, 설문조사의 질문 문항을 구성함에 있어 선행연구 분석과정 중 나온 결과들을 설문 문항과 예시 질문에 적극 반영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서들이 평소 기독교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까닭에 설문조사시 관련 내용에 관한 많은 예시와 질문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설문 응답이 용이하도록 했다. 기독교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덕목들에 관해서는 '기독교대학의 역할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조사'(임신일·김은영, 2019) 연구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인성교육 항목만을 선별하되, 이 연구주제에 맞게 첨삭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일반 인성교육내용들과 문헌정보학(사서)과 관련된 영역들은 인성교육진흥법(2015)과 교육부(2021)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과 교육부(2023) '2023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에 명시된 내용들 그리고 이병기(2014) 연구 내용을 참고하였고, 사서직무 및 역할에 대한 인식 부분은 홍현진 외 (2022), 이지연(2009) 연구들을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을 1차로 완성한 이후, 기독교대학 사서 3명과 문헌정보학 교수 3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수행하였다. 질의 내용이나 문장이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응답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과 난이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주요 용어에 대해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제시하고, 문항수와 문장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문항을 완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5가지 주제 분야에 43문항을 구성하였다. 질문은 '기독교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의 덕목에 대한 인식', '신앙과 직업과의 관계',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핵심 역할', '인성교육 지원 수행에 있어 걸림돌과 극복을 위한 재교육 내용', '인구학적 특성'이라는 주제 아래 구체적인 문항을 구성하였다(<Table 1> 참고).

<Table 1> Survey Questionnaire Composition

주제 구분	요소	문항수
1. 인구학적 특징	성별, 연령, 사서직급, 종교, 신앙 년수	5
2.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덕목에 대한 인식(5점 척도)	인간 창조가치 교육	4
	미래 인재역량 교육	4
	공동체의식 교육	4
	대인관계 및 변화적응력 교육	4
	기독교 가치 실천 교육	4
	지역사회 자원제공 실천 교육	4
3. 신앙과 직업에 관한 인식	- 신앙과 직업과의 관계(직업관) - 헌신 여부	2
4.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핵심 역할에 대한 인식(복수 선택)	-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4가지 영역) 유무 - 독서관련 프로그램 유무와 필요성 - 특정 주제컬렉션 개발 유무와 필요성 - 정보의 윤리적 사용 교육서비스의 유무와 필요성 - 인성교육 전담부서의 유무와 협력의 필요성 - 인성교육 전담부서와의 협력할 수 있는 영역과 방법	12
5. 인성교육 지원의 어려움과 대안 (복수 선택)	- 인성교육 지원에 있어 걸림돌(제한점) - 사서 재교육: 교육영역, 기관(단체), 인력풀(강사)	4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한 정황과 배경 그리고 선택 이유들을 파악하기 위해 기독교대학 도서관에 20년 이상 근속하였으며 기독교 신앙을 보유한 사서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은 기본적인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면담자와 심도있는 질문으로 발전해 가는 방식으로,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할 때에 주로 쓰이는 방법이다(Harrell & Bradley, 2009). 특히, 파일럿 조사에서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연구주제가 생소하여 예시가 없으면 답하기 어렵고,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많은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반영하여 설문조사과정에서는 난해한 내용의 질문은 줄이는 대신, 관련 내용들은 후속 인터뷰과정을 통해 상세한 배경과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와 정황들을 심도 깊게 조사하였다. 인터뷰 과정을 위해 미리 구성한 질문 주제들은 <Table 2>와 같다.¹⁾

1) <Table 2>에 나열한 질문 내용들은 인터뷰 시작 1주일 전에 이메일로 면담자에게 배포하여, 인터뷰의 기본 방향과 내용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인터뷰가 진행됨과 동시에 각 인터뷰 대상자에 맞는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질의들이 사용되었다(Harrell & Bradley, 2009).

<Table 2> Semi-Structured Interview Outlines

1. 기독교대학 인성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할 덕목(주제)에 대한 인식
2. 도서관 사서의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 필요성 및 방향
3.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요구
4. 현재 도서관의 인성교육 지원과정에서 제한점(걸림돌)
5.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서 재교육과정: 필요성, 교육영역(주제), 교육주체(강사 인력풀)
6. 피면담자 소개: 인구학적 특성, 도서관 직무, 세계관, 직업관, 신앙생활 배경 등

2. 연구대상 선정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기독교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다. 전국 기독교대학의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 '기독교대학'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대학의 구성요소와 정체성에 대한 많은 논의들과 정의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대학을 "설립자가 기독교인 개인이나 교회 혹은 교단이고, 대학 정관에 '기독교 정신'이란 교육이념을 분명하게 표방하고,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교목실을 두어 채플이나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대학"(조용훈, 2003: 206)이라는 기본 이해를 따랐다. 여기서 기독교는 개신교로 제한하였고, 이를 근거로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교 및 비회원교 학교 명단(61개교)을 1차로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종교재단 대학 목록에 나온 대학교 중에서 교목실을 두고 있는 대학 명단을 확보한 후,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기독교대학' 혹은 '기독교 정신'을 명시한 대학만을 선별한 결과, 최종 48개교를 연구대상 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² 둘째, 선정된 48개교 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와 해당 대학도서관이 속한 각종 협의회(예: 사립대학교협의회, 전국신학대학교협의회)를 통해 사서 이메일주소 총 269건을 확보하였다. 일부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등재한 49명의 사서들에 대해서는 전화연결을 통해 설문참여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했다. 이메일을 공개한 사서 7명을 추가하여 총 279명에게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링크와 QR코드를 배포하였다.

2) 선정된 대학교 48곳은 다음과 같다(자모순):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계명대학교(계명대학교 문화대학 포함), 고신대학교, 광신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동서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포함, 목원대학교,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 포함),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시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숭실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포함), 영남신학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국제법류대학원 포함), 한신대학교(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포함), 한영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혜전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25일에서 9월 13일까지 약 3주간(2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에 앞서 언급한 6명의 전문가들에게 파일럿 조사(2023년 8월 1일~8월 8일)를 실시한 이후, 설문내용과 문항들을 수정한 뒤 최종 완성된 설문내용이 배포되었다. 이 중 최종 51명의 사서가 응답하였다(회수율 18.3%). 낮은 회수율로 인해 여러 차례 1:1 전화연결을 통해 참여를 독려했으나, 참여가 저조한 관계로 부족한 조사내용은 심층인터뷰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조사내용을 보충하였다.

한편,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 진행을 위해 인터뷰 참여자는 기독교대학교 도서관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이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서들 대상으로 하되, 신학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 속한 회원들이 적격자로 추천하는 사서들을 접촉하여 인터뷰 참여를 요청하였다. 요청에 동의하는 이들에 한해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이후 이들이 추천하는 사서들을 계속해서 컨택하는 방법인 눈덩이 표본추출(snowball sampling) 방식을 통해 최종 다섯명의 피면담자를 선정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사서들의 인구학적 주요 특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Profiles of Interviewees: Professional Librarians in Christian Universities

면담자	성별	나이	사서 경력	신앙생활 년수	인터뷰 날짜/방법
사서 A	여	40대	20년 이상	20년 이상	2023. 09. 25.(1차/대면) 2023. 10.10.(2차/대면) 2023. 10. 25.(3차/화상-줌)
사서 B	여	50대	30년 이상	50년 이상	2023. 11. 07.(전화)
사서 C	여	60대	30년 이상	60년 이상	2023. 11. 08.(전화)
사서 D	남	50대	20년 이상	40년 이상	2023. 11. 09.(전화)
사서 E	남	40대	20년 이상	20년 이상	2023. 11. 10.(화상-줌)

인터뷰는 2023년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면담자와 일대일로 이루어졌고, 면대면, 전화 또는 화상(줌)을 통해 수행되었다. 인터뷰 시간은 평균 40분가량 지속되었으며 모든 내용은 사전 동의하에 녹화 또는 녹취되었다. 미리 구성한 인터뷰 질의 주제와 내용들은 사전에 이메일로 전달되었으며, 질의문을 바탕으로 질문하되 답변에 대한 이유와 정황들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터뷰 횟수는 1회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본 인터뷰가 진행되기 이전 전화 혹은 직접 만나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하며 피면담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여 면담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며 노력하였다. 면담 이후, 보충 질의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2차 혹은 3차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여 조사내용을 보충하였다. 녹취된 내용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모두 전사(transcript)되었는데,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면담자의 표현양식 그대로 필사되었다(Silverman, 2005).

3. 데이터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서 제공하는 E-Stat 3.0을 사용하여 정리·분석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롯한 단수 또는 복수 선택형 문항에 대해서는 명목척도로 구성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인성교육 덕목'에 관한 질문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는데, 관련 항목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적인 수치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통계검정을 수행하였고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내용만 제시하였다.

인터뷰 조사에서 녹취·녹화된 자료는 모두 전사되었고,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1차 개방코딩(open coding)과 2차 축코딩(axial coding) 방법으로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1차 개방코딩에서는 각 문장 혹은 단락을 주제별로 단어나 짧은 구절로 요약하였고, 개념적으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있는 문구와 단락을 범주화하였다. 2차 축코딩에서는 1차 코딩에서 나온 주제나 의미 단위들을 다시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재구성하고 각 범주 사이의 연결관계를 생성하여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자료분석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연구자가 자료 수집단계와 분석(코딩)에 모두 참여하여 교차 확인하였다(Lincoln & Guba, 1985).

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설문조사법과 면담법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분석·정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결과들을 제시하되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의 기저 배경과 정황에 대한 부분들은 심층인터뷰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보충하며 함께 결과내용을 제시하고 확증하였다.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대부분 여성(68.6%) 사서가 조사에 응답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19.6%), 30대(29.4%), 40대(23.5%), 50대 이상(27.5%)까지 거의 모든 연령대가 균일하게 참여하였다. 직급별로도 어떤 직급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했으며, 기타 직군(비정규직 도서관 교육 및 행정조교)들도 상당수(21.6%) 응답하였다. 이 연구의 표본에 있

어 특이점은 대부분의 기독교대학들이 직원 채용시, 세례교인 혹은 출석교인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상기해 볼 때, 무교(13.7%)와 타종교(5.9%)를 가진 사서들이 약 20%나 이 연구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또한, 신앙생활 연수에 관한 질문은 무교나 타종교를 선택한 응답자는 제외되고, 기독교인 사서(45명)만이 참여했다. 이들의 신앙생활 연수에 있어서도 특이점이 발견되는데, 응답자의 약 80%이상이 20년 이상의 연수를 가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근 1년미만이라는 양극단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통계검정을 수행하였으나, 성별, 나이, 종교 및 신앙생활 연수 등 어떠한 인구학적 특성들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p>0.01$).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구분		응답자(명)	비율(%)	구분		응답자(명)	비율(%)	
성별 (N=51)	남성	16	31.4	종교 (N=51)	기독교-세례교인	36	70.6	
	여성	35	68.6		기독교-출석교인	5	9.8	
연령 (N=51)	20대	10	19.6		무교	7	13.7	
	30대	15	29.4		타종교	3	5.9	
	40대	12	23.5					
	50대 이상	14	27.5					
직급 (N=51)	8-9급(직원)	16	31.4		신앙생활 연수 (n=45)	1년미만	11	21.6
	6-7급(계장 주임)	9	17.6			1년-5년	0	0
	5급이상(과장 이상)	15	29.4			5년-10년	0	0
	기타 (계약직/교육행정조교 등)	11	21.6			10년-20년	6	11.7
				20년 이상		34	66.7	

2. 인성교육의 의미와 교육영역

기독교대학에서는 어떤 기독교 인재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혹은 주제)가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는 사서가 인성교육 지원에 앞서, 인성교육에 대해 어떤 선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기독교교육학 부문의 선행 연구(임신일·김은영, 2019)를 토대로 6가지 인성교육 항목들, ‘인간창조 가치 교육’, ‘미래인재역량 교육’, ‘공동체의식 교육’, ‘대인관계 및 변화 적응력 교육’, ‘기독교 가치 실천교육’, ‘지역사회 자원 제공 실천교육’이라는 항목아래 각각 4가지 구체적인 문항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

으로, 6가지 주제 영역 모두 4점대 이상의 높은 동의를 보이며, 관련 항목들 모두 기독교대학 인성 교육 영역으로 적합하며 우선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Table 5> 참고).

<Table 5> Themes of Character Education to be Taught at Christian Universities

항목 (평점)	문항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2	3	4	5	1	2	3	4	5	
A. 인간 창조 가치 교육 (4.47)	인간존재의 소중함을 알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4	15	32	4.5				
		비율	0	0	7.8	29.4	62.8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10	16	25	4.3				
		비율	0	0	19.6	31.4	49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가치를 교육한다	빈도	0	0	9	9	33	4.5				
		비율	0	0	17.7	17.7	64.6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1	19	31	4.6				
		비율	0	0	2	37.2	60.8					
B. 미래 인재 역량 교육 (4.43)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기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2	21	28	4.5				
		비율	0	0	3.9	41.1	55					
	융·복합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5	23	23	4.4				
		비율	0	0	9.8	45.1	45.1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7	23	21	4.3				
		비율	0	0	13.7	45.1	41.2					
	창의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4	18	29	4.5				
		비율	0	0	7.8	35.3	56.9					
C. 공동체 의식 교육 (4.47)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연대의식을 교육한다	빈도	0	0	5	16	30	4.5				
		비율	0	0	9.8	31.4	58.2					
	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3	16	31	4.5				
		비율	0	0	5.9	31.3	60.8					
	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3	14	34	4.6				
		비율	0	0	5.9	27.4	66.7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9	19	23	4.3				
		비율	0	0	17.6	37.3	45.1					

D. 대인관계 및 변화적응력 교육 (4.2)	전공 및 직업교육 이외에 다양한 인문교양 교육을 제공한다	빈도	0	0	6	22	23	4.3
		비율	0	0	11.8	43.1	45.1	
	대인관계로부터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9	22	20	4.0
		비율	0	0	17.7	43.1	39.2	
	다양한 직업과 전문영역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7	26	18	4.2
		비율	0	0	13.7	51	35.3	
	사회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5	24	22	4.3
		비율	0	0	9.8	47.1	43.1	
E. 기독교 가치 실천 교육 (4.25)	기독교의 진리를 인지하도록 교육한다	빈도	0	2	6	13	30	4.4
		비율	0	3.9	11.8	25.5	58.8	
	인간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1	6	20	24	4.3
		비율	0	1.9	11.8	39.2	47.1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실천하도록 교육한다	빈도	0	2	10	18	21	4.3
		비율	0	3.9	19.6	35.3	41.2	
	기독교인의 가치와 수업 주제들을 융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2	9	18	22	4
		비율	0	3.9	17.7	35.3	43.1	
F. 지역사회 자원 제공 실천 (4.22)	사회의 요구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역할을 교육한다	빈도	0	0	2	26	23	4.4
		비율	0	0	3.9	51	45.1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정보, 지식, 장소, 인적, 물적 자원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7	27	17	4.2
		비율	0	0	13.8	52.9	33.3	
	사회의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교육한다	빈도	0	3	10	23	15	4
		비율	0	5.9	19.6	45.1	29.4	
	통합된 지식(integrated knowledge)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빈도	0	0	5	27	19	4.3
		비율	0	0	9.8	52.9	37.3	

특히, 교육영역 중 ‘인간창조 가치 교육’(4.47)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4.47)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4.43) 순으로 교육내용의 중요도를 꼽았다. 상대적으로 기독교 가치 실천교육(4.25), 지역사회 공헌(4.22)이나 대인관계 역량 교육(4.20)은 후순위로 꼽혔다. 나아가, 다른 교육영역에서는 부정적 의견(‘아니다’, ‘매우 아니다’라는 의견)이 없는 반면, 기독교 가치 실천교육의 항목에서 비록 소수(1~4%)이긴 하나 이 영역들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종합하면, 사서들은 인성교육의 의미를 ‘기독교 기본 진리에 기초

하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또 타인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 자신의 존재의식을 가지고 창의력을 길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하며,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교양과 함께 사회의 필요를 인지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서들 또한 설문 결과와 유사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들은 인성교육의 우선순위로 인간가치 혹은 인간존엄에 대한 이해, 특히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중심을 확고히 하는 것을 다른 가치에 비해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 인간의 존엄과 자신을 소중히 대할 수 있는 근거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라는 기초 위에서 있어야 함으로 이를 2순위로 꼽았다. 그러나,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와 가치실천은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타인과 환경을 이해한 가운데 수행되어야 하며 이 교육방법 또한 기존 교회나 채플에서의 교리 내용의 전달이 아닌 문화적 환경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어떻게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적인 고민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저는 인간 창조 가치 교육을 첫번째로 꼽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기독교대학에 왔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지 않고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치가 어떠한 지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겠다...(중략)...그런데 (그 교육방법이) 처음에는 학생들과 친해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꾸려나가는 시간들이 좀 쌓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교육하고 '이게 옳아!' 라고 제안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독교교리가 진리이고 그렇긴 하지만,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서 A)

“기독교 기본교리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영역들인데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좀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서 D)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기중심을 잡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알기 위해서는 타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 타자와의 관계부분, 나를 알기 위해서 타자를 알고 타자를 알아야 나를 아는...이런 관점에서 이 교육내용을 첫번째로 꼽았고요. 두번째 기독교 가치 교육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런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문화들 속에 (있고) 나는 이 공동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봐요.” (사서 E)

사서들이 이런 교육 덕목을 우선순위로 꼽은 이유로 현 한국사회에서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은 사건사고와 빈번한 사회부조리를 꼽았고, 기독교인의 가치 실천력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 지탄과 부정적인 여론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뿐 아니라 기독교대학에서의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는 대규모 채플과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설교형태의 교리 전달이 크게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며 교육방법의 변화와 인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문화적 환경과 토대조성이 우선 되어야 함을 함께 지적하였다(사서 C, D, E).

3. 직업관: 신앙과 직업(사서직)과의 관계

기독교인으로서의 사서들은 신앙과 직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신앙은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와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19.6%)라며 신앙과 사서 직무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맡겨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 기독교인으로써의 책무를 다한 것이다’(43.1%)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직장 또한 개인의 신앙이 드러나는 곳임으로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37.2%)는 의견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 연장선 속에서 자신의 업무 및 직업으로 자신이 속한 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본인은 헌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그렇다, 52.9%)과 부정적인 의견(아니다, 47.1%) 또한 비슷하게 공존했다.

사서 개인면담 내용에서도 설문에서 나타난 의견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직업 혹은 업무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기에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과 이와 반대로 ‘기독교인이기에 개인적인 의지와 소명을 가지고 이를 업무에 녹여내려 애쓰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서들이 공존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 동일하게 기독교 직업관 혹은 세계관에 대해서 평소에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고 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에 앞서 사서들은 기독교 세계관 및 직업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토로했다.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워요, 고민이 좀 되는 것이...개개인의 열정과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기독교인으로써...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를 하면 언제나 반드시 근로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에 대한 관심과 신앙적인 관심, 이를테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고민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은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사서 A)

“사서는 그냥 사서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일(사서 업무)은 불교 동국대학에 가서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서로서의 역량을 다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거창한 목적(기독교 세계관 혹은 직업관)을 갖게 되면 현실에서 괴리감이라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사서 업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까? 직업소명설 부분으로 접근해야 하나? 이런 것...(중략)...내가 맡은 부분이 전체 파트 중에 이것(사서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 내가 큰 계획(기독교대학 사명 혹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서 E)

4.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핵심 업무에 대한 인식

기독교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의 직무 및 역할에 대한 생각들을 조사하기 이전에, 응답자가 속한 대학도서관에서는 인성교육 지원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과 관련된 4가지 서비스영역, ‘독서관련 프로그램’, ‘주제 컬렉션(큐레이션)’, ‘서지인용 및 연구윤리 교육서비스’, ‘인성전담 부서와의 협력프로그램’ 중 어떤 서비스가 우선되는 것이 좋은지를 순차적으로 조사하였다.

(1) 도서관의 인성교육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업무) 유무

인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39.2%)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는 곳(45.1%)이 비슷한 비율로 응답했으나, 아직 운영하지 않는 대학도서관이 많았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응답자가 속한 도서관에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의견(15.7%)이다. 이는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인성교육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확신 부족, 즉 인성교육의 의미와 지원서비스를 어디까지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함과 몰이해로 인해 ‘모르겠다(15.7%)’고 대답하는 이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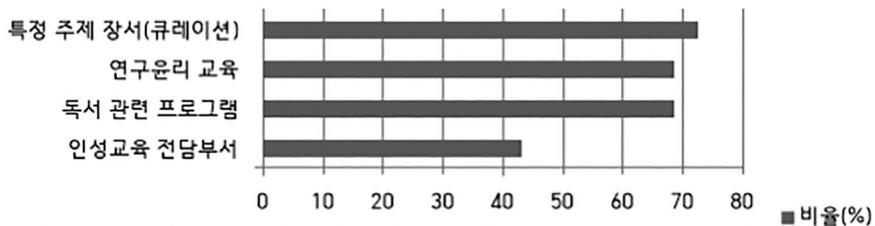
이 사실은 사서와의 면담과정에서 더욱 명백히 드러났는데,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서비스들 즉, 교양함양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서지인용 및 표절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인성교육 지원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었다. 이는 차후 사서들의 재교육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기독교 인성교육이 무엇이며 관련 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 교육받기 원한다는 요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2) 대학도서관 서비스 현단계: 인성교육 지원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수행 비율

인성교육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의 및 인식이 불확실한 것을 감안하여 기존 대학도서관에서 직접적인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서비스군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4가지 서비스 영역(독서프로그램, 주제 컬렉션(큐레이션), 연구윤리 교육서비스, 인성관련 부서와의 협력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업무) 비율과 이를 발전시켜 도서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인성교육 지원 서비스(업무) 종류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성교육 지원서비스 혹은 그와 유사한 서비스 운영 비율은 특정주제 컬렉션(큐레이션) 구축(72.6%), 독서관련(예. 독서토론, 독서골든벨, 등) 서비스(68.6%), 연구윤리(예. 표절방지) 교육서비스 제공(68.6%)순으로 나타났다(<Figure 1> 참고). 즉, 현재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서비스로 운영되고 있고 또 차후 활용될 수 있는 대학도서관 서비스 영역은 장서 선별과 관련된 영역, 즉 관련 특수주제(기독교 인성교육)의 장서 수집과 이 자료들을 활용한 서비스, 즉 독서프로그램과 정보의 윤리적 사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Figure 1> Libraries Providing Services related to Character Education Sup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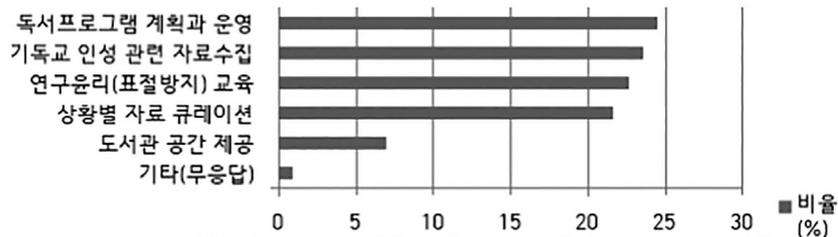


그러나, 대학내 인성교육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43.1%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다수의 대학이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것(31.4%)과 더불어 그 존재 유무 자체를 ‘모르겠다(25.5%)’는 항목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사서 개인 인터뷰를 통해 “학내에 명시적으로 ‘인성센터(부서)’라고 표기한 부서가 없는 한, 어느 부서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전담하고 있는지 대답하기 힘들고, 막연히 교목실이나 학생 상담센터가 보조적으로 할 것이다”(사서 B)라고 짐작하고 있었으며 “교육을 전담하는 교무처에서 교과 및 비교과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교양교육(수업)만을 강조할 뿐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강조하지 않음”(사서 E)으로 인해 학내의 인성교육 자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그 이유로 꼽았다.

(3) 기독교대학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업무)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서비스(업무)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및 선별과 관련된 부분, 즉 인성교육 관련 장서개발(23.5%)과 특정 주제 장서의 큐레이션(21.6%) 서비스가 응답의 한축을 이루었고, 수집된 장서를 활용하는 서비스, 즉 독서프로그램(24.5%)과 정보의 윤리적 이용에 대한 교육(22.6%) 부분이 또 다른 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공간활용 및 제공(6.9%)에 관한 영역은 소수에 그쳤다(<Figure 2> 참고). 이 결과에서 서비스 개발 적합성의 우위나 순위를 나열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공간활용과 제공'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비스(업무) 항목들이 20%대로 균일한 결과를 보였다.

<Figure 2> Primary Library Roles in Character Education Support



따라서, 조사내용을 더욱 심화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 서비스(업무) 영역에 대한 필요성(적합성)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도서관의 주도하에 기획·운영되는 서비스 이외에 인성교육 담당부서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력(지원) 서비스'(4.2점)가 다른 서비스보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서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와 배경이 밝혀졌는데, 도서관의 고유하고 우선되는 기능이 인성교육 지원에 있지 않다는 점(사서 E)과 현 도서관이 처한 내·외부 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었다(사서 A, B, C). 그 다음 순위로 '연구윤리(예. 표절 방지) 교육서비스를 제공'(4.0점)하는 것과 '인성교육과 특화된 장서(컬렉션)개발과 제공서비스'(3.8점) 그리고 '인성교육 특화 독서프로그램 제공서비스'(3.8점) 순으로 꼽았다(<Table 6> 참고). 이것 또한 순위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제시된 도서관 지원서비스에 대해 모두 3.5점 이상으로 적합 또한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Table 6> Library Services for Character Education Support

항목		매우 아니다			매우 그렇다		평균
		1	2	3	4	5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특화된 독서프로그램 (예: 독서치료 등) 제공	빈도	1	5	10	23	12	3.8
	비율	2	9.8	19.6	45.1	23.5	
인성 및 영성(신앙) 관련 주제장서(컬렉션) 수집 및 제공	빈도	1	6	10	19	15	3.8
	비율	2	11.8	19.6	37.2	29.4	
연구 윤리(예: 표절 방지)관련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빈도	0	3	10	24	14	4
	비율	0	5.9	19.6	47	27.5	
학내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력 필요(전담부서가 있는 대학 응답자 22명에 한함)	빈도	0	1	1	12	8	4.2
	비율	0	4.6	4.6	54.5	36.3	

사서와의 인터뷰에서도 설문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인성교육이라는 관련 주제에 대해, 현재 속한 도서관이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 즉, ‘인성교육을 도서관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관련 서비스를 단순 직관에 의지하여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서들은 기존에 자관에서 수행한 유사 서비스나 역할에 기초하여 응답했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당위성 혹은 이상에 기초하여 의견을 피력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도서관 환경에서 수행가능한가의 여부에 기초한 다소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역할과 업무만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설문이나 생각을 해 본 적도 처음이고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실무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심도깊은 업무 혹은 역할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재 현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업무중심으로 생각했고, 이 주제로 맞춰볼 수 있는 현장 업무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인성교육을 할 때 도서관에서는 공간제공도 적합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상황별 관련 자료에 대한 큐레이션을 한다면 큐레이션의 장점이 늘 언제든지 그 사이트에 가면 (이용자들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구요...(중략)...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기관인증평가나 대학인증평가와 맞물려 있는 곳이에요. 2년동안 작업(서비스)하면서 계속 실적을 내고 증빙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 실적을 무시한 채 인성교육 지원 서비스를 이상적으로 크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서 A)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도서와 정보잖아요? 물론 공간도 있고...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보다) 자료와 정보제공을 통한 인성교육을 위한 토대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서 B)

“(인성교육과 관련된) 장서 수집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서비스는 어차피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은 홍보 마케팅이죠. 요새 학생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인성관련 큐레이션, 특별 컬렉션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서 C)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이 인성교육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력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 근원적인 의구심을 표했다. 그것은 기독교대학이라 하더라도 가치중립적인 서비스가 아닌 ‘기독교’ 인성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도서관의 역할과 서비스 영역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가치에 동의할 수 있도록 사서재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설득된다 하더라도, 사서들은 대부분 전통적으로 해오던 도서관 서비스, 즉 독서 및 정보활용 교육과 그것을 위한 장서개발 및 제공이라는 수준에서 서비스(업무)를 제안하였다.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기독교 여부와 상관없이 범용적인 부분으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독서토론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것이지 기독교 인성교육을 위한 서포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만약 기독교 인성교육 위한 독서교육을 꼭 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 기독교 가치관에 해당되는 콘텐츠와 그렇지 않은 콘텐츠를 공동으로 같이 읽으면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인성교육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는 있겠죠.” (사서 E)

(4) 인성교육 전담부서의 지원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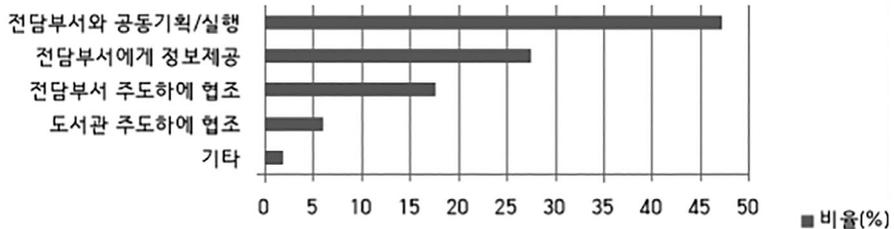
학내 인성교육 전담기관 및 부서(예: 인성센터, 학생처 등)가 있을 경우, 도서관이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이들 부서와 협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여부 조사와 협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현재 대학의 43.1%만이 인성교육 전담부서를 두고 있었고, 그중 도서관이 이와 협력업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단지 27.2%에 지나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90.9%가 차후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력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도서관과 전담부서가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47.1%), 인성교육과 관련 정보(예: 인성교육 우수사례, 관련자료)를 제공함으로(27.5%), 전담부서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서가 조언 또는 가이드하는 방식(17.6%)으로,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전담부서 관계자가 조언 또는 가이드하는 방식(5.9%)으로 협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1.9%) 학내 인성교육 부서뿐 아니라 외부 기관 대학교회, 선교단체, 기독교 출판사쪽과 연계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Figure 3> 참고).

인터뷰에서도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력을 한다면, 이선에서 조언하고 보조하는 방법이 아닌, 일선에서 공동으로 교육서비스를 기획·실행하는 방법을 선호했다. 서비스 개발이나 전담부서 협력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나, 만약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서관이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인성교육 지원을 주도함으로써 도서관 홍보나 대학기관인증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반면에 도서관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 행사를 주도하는 것은 어렵고 전담부서에게 정보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 선에서의 협력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측은 이 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의 주도권과 학교에 높은 평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에 주목하였고, 최소한의 협조만을 강조하는 측은 현재 속한 도서관의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을 그 이유로 꼽았다.

<Figure 3> Methods to Collaborate with Character Education Department



“저희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주관 인증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도서관 파트를 채점한 채점관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교육과 정착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 인성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학생을 부르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도서관이 이것을 한다면 부담이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서관이 차라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까지 하는 것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서 A)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시행하고 인성교육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서관의 위상이나 가치도 높이고 좋지 않을까요? 협력관계에서 도서관은 학내에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저는 우리 학생들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 홍보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각자(전담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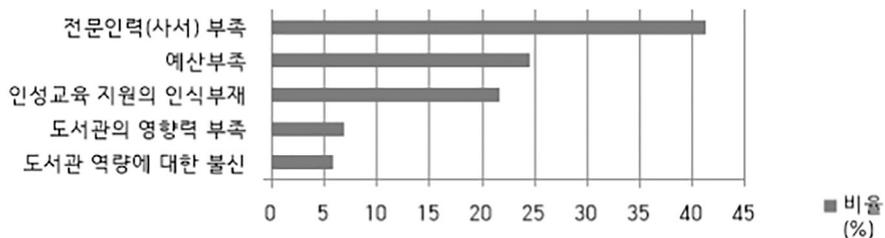
만)하는 것 보다는 (도서관과) 같이 협력해서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대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각 스터디룸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습 교육장소로 굉장히 좋아요. 학생들이 선호하기도 하고...그런 교육공간을 저희 도서관에서 제공해 주겠다고 먼저 홍보를 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 봤어요...(중략)...사실 저희 도서관이 관련(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딱 기독교 인성교육만은 아니지만... 내년에 '인성-지성-영성'이라고, 비교과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영성과 관계되는 것들을 영화와 접목시키고, 아까 나열해 주신 인성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이나 큐레이션쪽도 하고. 저희는 비교과프로그램 대학도서관 기관인증평가를 그쪽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사서 C)

“인성교육의 영역은 별도의 부서에서 이끌어가야 할 사항이지 도서관은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대학도서관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대학의 어려움 때문에 예산인력 공간 모든 부분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본연의 기능 이외에 그런 부분의 지원까지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소극적인 자세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사서 B)

5. 인성교육 지원 서비스에서의 걸림돌(제한)

대학도서관이 인성교육을 지원을 계획할 때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을 기획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 도서관의 열악한 현실과 상황들에 주목하였다. 현 대학도서관이 인성교육 지원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실질적인 '전문인력인 사서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41.8%)과 '대학도서관의 예산 부족(24.5%)'을 높은 순위로 꼽았다. 인성교육 지원과 직접적인 연관되는 부분으로 '인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인식의 부재'(21.6%)를 그다음 한계로 꼽았다. 나아가 현재 대학도서관에 대한 대학의 불신과 무관심, 즉 '대학내 도서관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불신과 미지원'(6.9%)과 '도서관의 인성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본 역량에 대한 불신과 인식미비'(5.8%) 또한 인성교육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인식하였다(<Figure 4> 참고).

<Figure 4> Library Obstacles(Barrier) in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인터뷰에서 앞서 인성교육 지원 및 전담부서와의 협조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사서들의 의견 그 기저에는 이 걸림돌부분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 외적인 문제점인 도서관 예산 및 사서 인력의 부족 이외에도 실제로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 도서관의 기본 역할로 타당한가에 대한 인성교육 자체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인성교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큰 걸림돌이었으며 이것은 사서 재교육과정 교육내용에 적극 반영되길 요구했다.

“과연 이것을 도서관에서 해야 하는 (서비스) 방향성과 맞나?라는 고민이 먼저 앞섰구요. 그와 더 붙어서 내가 이 서비스를 진행하다고 했을 때 학내에서 이것들을 지지해 줄까? 서비스 참여를 학내에 요청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사서A)

“인성교육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인 사서가 부족하고 대학도서관이 인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인식의 부재도 큰 것 같고요. 내가 생각하기엔 인식 부재지요.” (사서 B)

“사립대학은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기독교대학은 모두 사립대학이고. 거의 재정적으로 고착상태에 빠져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것도 지방대학에... 지금 대학은 기관인증평가때문에 이쪽으로(도서관)는 신경도 안쓰고 있고... 저희 도서관도 인력이 70% 감축되었거든요. 은퇴한 (사서) 자리는 아예 충원하지 않죠. 70% 감축되고 하다보니깐... 기독교대학 도서관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다.” (사서 C)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 대학이 신학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이 기독교 인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어요... 대학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서 D)

6. 사서 역량강화를 위한 재교육

(1) 재교육 영역(주제)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사서들은 어떤 영역에서 가장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 조사하였다. 사서들이 지원받고 싶은 교육영역은 크게 두가지 주제로 나누어졌다. 첫째,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관련 프로그램 소개와 실행방법 및 성공 사례들을 전수받길 원했고 둘째, 인성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교육받길 요청했다. 그 이외에 기독교인으로써 사서직을 수행하는 의미와 자세에 대한 부분으로 기독교 세계관 및 직업관을 배우길 원했고, 사서 개인의 영성생활(예: 성경읽기, QT)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었다(<Table 7> 참고).

<Table 7> Topics of Librarians' Re-training Courses

문항	응답(명)	비율(%)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방법	23	22.5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과 프로그램 소개	20	19.6
기독교 인성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18	17.7
기독교 인성교육의 교육방법	13	12.8
성공적인 인성교육 지원 사례 도서관 소개와 체험	11	10.8
기독교 세계관 및 직업관	9	8.8
기독교 인성교육을 위한 장서개발(큐레이션)	7	6.9
기타: 개인 영성생활(예: 성경읽기, QT) 지원	1	0.9

“저희 사서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교육은) 인성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그 교육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서들에게 갖춰져 있지 않다면 외부에서 아무리 이 서비스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이 서비스를 위한 외부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 실행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고...도서관 내부든 외부든 서비스 실행에 대한 걸림돌 혹은 문제가 발생을 해도 사서가 끝까지 그 서비스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서 스스로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져요.” (사서 A)

“실제 사례들을 인성교육 지원서비스 사례들을 실제로 접해 보는 것? 타인들의 간접경험들, 사례들을 많이 접함으로 도움을 받고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성공사례들을 통한 간접경험과 교육들이 좋을 것 같아요.” (사서 B)

사서의 재교육 과정을 관련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 이외에 간접적으로 사서들이 서비스를 개발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기초참고 자료 및 인프라를 문헌정보학 전문가들이 생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독교 인성교육에 걸맞는 단계별 콘텐츠들을 (문헌정보학) 교수님들이 발굴해 주셔서 저희쪽에 제공해 주신다면...그 콘텐츠들을 묶어서 단계별 교육 1단계에서는 인성과 관련된 독서교육을 이렇게 하고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해서...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기독교 가치관'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발굴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도서관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교수님들이 더 연구하셔서 대학도서관의 큐레이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에 참고가 될 만한 정보들을 추가해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서 E)

(2) 사서 재교육 주관 기관 및 단체

기독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서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수행할 때 어떤 기관 혹은 단체(학회 및 협회)가 주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대체로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38.2%)나 지역거점 기독교대학도서관(27.5%)이 주도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일반 사서들의 재교육을 주도해 오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분과(11.8%) 혹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9.8%)이나 한국도서관협회(6.9%)에서 특수주제 분야의 지원차원에서 사서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개별도서관(3.9%)이 필요에 따라 교육을 진행할 것과 기타 의견으로 기독교 출판사(1.9%)에서 주관해 줄 것도 제안하였다.

선택한 단체나 기관이 사서 재교육을 주관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배경에는 사서들이 요구한 재교육 주제(영역)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언급한 기관들이야말로 ‘기독교 신앙과 사서직 업무를 융합한 세계관의 예시를 가장 잘 제시’해 줄 수 있고(50%), ‘기독교 인성교육과 관련된 도서관 프로그램과 실무와 사례를 전수’해 줄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었다(45.2%).

인터뷰 내용에서도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거점기독교대학도서관이나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이하 신도협)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기독교’ 인성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제시해 줄 수 있고, 추상적인 관념으로써의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이 가치가 어떻게 실무 현장에 적용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저는 신학대학교도서관협의회와 같은 도서관협의회에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시를 들어주신 기관들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는 엄연히 제한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을 이런 기관(신도협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의뢰한다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든 교육과정은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사서들에게 설득해 가면서 재교육하려고 할까?라는 의구심도 들구요. 그러다보니, 가치적인 측면에서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 생각되고요...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이전에 기독교

교세계관과 기독교 인성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이런 기관(창조과학회)들과 협업하면 좋겠다...”(사서 A)

한편, 신도협이나 기독교대학 도서관 이외에, 대표적인 사서 재교육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사서교육분과)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독교대학 도서관들이 일반 대학도서관들에 비해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따라서 신도협 규모가 너무 작으니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이런 큰 기관에서 재교육과정을 추진해야, 하나의 큰 추진체로 혹은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해내며 재교육과정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들은 일반 도서관 서비스를 기획하고 교육을 전수할 뿐, 기독교와 같은 특정 주제 분야의 문제와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큰 조직에서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사서들도 참여할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다만 기독교 인성교육 서비스에 대한 현실성 있는 사례들은 신도협같은 특정주제(기독교)를 가진 단체에서 하위주제범위로 함께 협력하여 재교육 방향과 실례를 고민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한국신학대학교협의회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왜 저는 재교육기관으로 이 협의회를 뺏나면... 일단 기독교대학들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기독교대학이면서 많이 성장한 큰 대학들은 많이 빠져 있어요. 신학대학 위주의 대학들끼리만의 협소한 교육밖에 안되니까요. 그리고 사실 신학대학교 도서관들이 일반대학교 도서관들보다 환경적으로나 인력면에서 더 열악한 면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대학도서관이 모인 신도협에서 재교육을 주도한다는 것에서 회의적이죠.” (사서 C)

“국립중앙도서관은 일단 거점이 되는 것 같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할 것 같고.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신학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 대학도서관에서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그래도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인데, 실제 업무에 들어가서는 신학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관심있게 볼 것 같아요. 어쨌든 큰 추진들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고 하위범주로 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면 좋겠다...” (사서 D)

(3) 재교육에 적합한 강사(인력풀)

기독교대학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서재교육을 실시할 경우, 적합한 강사 인력풀은 기독교신앙을 가진 문헌정보학과 교수(64.7%)와 기독교대학에 속한 현장 사서(17.7%) 그리고 신학과 교수(15.7%)로 조사결과가 좁혀졌다. 이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사서 재교육 강사로 활동하기보다 이 세 전문가집단이 협업하여 사서에게 도움을 주길 원했다. 특히 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실례를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이어야 하고 동시에 기독교 신앙 및 기독교 인성이나 관련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를 원했다. 이것은 앞서 사서가 제공받고 싶은 재교육 영역과도 주제적으로 맥락을 같이 한다.

“우선 문헌정보학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기독교적인 부분이 이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 부분들을 매우 심도있게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여러 성공사례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당신네 대학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여주고, 관련 사례들을 적용했을 때 피드백 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문헌정보학)핵심 교수님들이 그것들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분이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서 E)

“저는 신학과 교수님들 중에 기독교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독교교육을 주관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독교교육학회나 협회에서도 이런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서 D)

“기독교신앙을 가진 문헌정보학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과 교수님이 오신다고 해서...저희가 신학적인 관점만 배우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중략)...현장사서도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나, 재교육이라 한다면 주로 기독교신앙을 가진 교수님이 주도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현장사서와 연합을 하면 좋겠다...” (사서 A)

IV. 결론 및 제언

1. 요약정리

본 연구는 기독교 진리에 기초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 인성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는 대표 부속기관 중의 하나인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오랜 신앙생활(신앙연수가 20년이상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을 해 왔으며 근무지가 기독교대학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재양성 혹은 기독교 인성교육 나아가 기독교 직업관 및 세계관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으며,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것은 기독교대학의 중요가치와 설립취지에 따른 사서직의 역할과 직무를 연결한 구체적인 신념이나 직업관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연결되었다. 사서라는 직업인은 주어진 직무와 업무를 기능적이고도 기술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써의 소임을 다한 것이며 오히려 직무 공간에서 개인적인 신앙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동시에 같은 비율로 자신의 직업의 의미를 신앙과 결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예시를 구하고 있었다.

둘째,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앞서 사서들은 기독교가치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기독교 인성교육을 기독교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또는 당위성이 잘 동의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해 설득받기 원했고 나아가 도서관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과 동기 또한 부여받길 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기독교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연구자들이 제시한 6가지 인성교육 덕목에 맞춰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인지교육이나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 공헌 혹은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가치에 집중된 덕목들, 기독교 가치에 기초하여 인간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선상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며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자기중심성을 확고히 하고 창의력을 가진 인재로 길러지는 교육내용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나아가, 교육내용 만큼이나 교육방법과 문화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단순 기독교 교리의 주입이나 습득이 아닌, 구체적인 기독교 가치 실천과 기독교 공동체 문화라는 토양과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현재 기독교대학에 인성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곳은 전체 기독교대학의 40%에 지나지 않았고 그중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30%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대학도서관에서 인성교육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관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기 보다, 대학 내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력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협력 방법으로 단순 조력이나 자료제공 차원이 아니라 전담부서와 동등한 입장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조하는 것 이외에 도서관이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과 방법에 대해서는 인성교육의 본질과 의미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여 역할과 업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한점과 환경들을 고려하여 기존의 유사한 서비스에 기반한 도서관의 서비스들

을 언급했다. 따라서, 대부분 정보자료 수집과 관련된 것으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특별주제 장서를 선별·수집하고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교육서비스인 독서관련 프로그램과 정보의 윤리적 사용과 활용에 대한 교육서비스라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인성교육을 위한 공동학습공간의 지원이라는 측면의 도서관 공간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서비스는 소수만이 응답했다.

다섯째, 도서관이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역할과 소임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항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전문 인력인 사서의 절대적인 부족을 꼽았고, 이는 현재 기독교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황, 대학내 도서관 예산 및 지원의 감소와 무관심, 학내의 도서관 및 사서역할에 대한 불신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운영하는데 걸림돌로 여겼다. 또한 근본적으로 기독교대학내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사서의 인성교육의 의미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의 미비 또한 인성교육 지원에 있어 큰 제한점으로 인식하였다.

여섯째, 사서들이 대학내 인성교육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수행할 경우,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인성교육의 의미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도서관의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방법들, 다른 도서관 및 기관들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전수받길 원했으며, 근본적으로 기독교인 사서로써 가져야 할 세계관 및 직업관에 대한 내용도 교육받길 요구했다.

끝으로, 사서재교육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 및 단체로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나 지역거점 기독교대학도서관을 꼽았고 이들이 거점기관이 되어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 도서관과 달리 기독교적 가치관을 사서 업무에 녹여낼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전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적 배경은 없지만, 대학도서관 사서재교육을 담당해 왔던 대표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분과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동일하게 특수주제(기독교 인성교육) 분야라는 주제하에 사서재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사서들에게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줄 수 있는 거점 거대 기관이기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강사 인력풀로 기독교 신앙과 사서직 전문성을 모두 갖춘 융합 전문인이 교육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 기독교신앙을 가진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현장사서를 제일선의 강사로 꼽았지만, 이들이 독립적으로 교육하기보다 신학과교수(특히 실천신학이나 기독교교육)와 기독교신앙을 가진 문헌정보학과 교수 그리고 현장사서가 함께 협력하여 재교육과정 강사로 일해 줄 것을 요구했다.

2. 제언 및 후속연구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직업관 및 세계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기독교 인재 양성 혹은 기독교 인성교육 나아가 기독교 직업관 및 세계관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고, 어떤 가치관과 방법으로 접근하고 실천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였다. 또한 재교육시 인성교육의 의미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가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내용이었다. 기독교대학 내 인성교육의 위기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확실한 교육의 부재로부터 기인하며(정대경, 2019),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직원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미스(Smith, 2002)는 사서에게 도덕적 모범, 겸손, 친절, 기도 등 사서의 직업윤리 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기독교대학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를 대상으로 기독교 직업관 및 세계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서가 일과 신앙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사서 각자가 세계관을 확립하고, 사서가 직업관을 서로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인성이란 가르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격'과 '모범적 행동'을 통해서만 교육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조용훈, 2016). 따라서 사서가 먼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근로 학생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범적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서는 기독교적 직업관에 기반하여 도서관 입장에서 대학 교양교육의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면담결과, 일부 사서는 도서관이 인성교육을 지원해야 하는가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였고, 한편으로 인성교육 지원이 도서관의 긍정적인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먼저 도서관은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인성교육의 본질과 의미에 기반하기보다는 기존의 유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응답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사서들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장서를 선별하여 수집하고 추천하는 큐레이션 서비스를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교육서비스인 독서관련 교육프로그램과 정보의 윤리적 사용과 활용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서의 직업관과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하에, 도서관은 기독교대학에서 진행중인 인성교육 관련 교양 교과목 및 비교과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사서는 학생들이 신앙과 학습을 통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기독교교전, 교회역사, 일반 장서, 특별 장서 등 장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Smith, 2000 ; Terhune, 2006). 한국 신학도서관협의회 30년사에서 김창의(2004)가 언급했듯이, 사서는 이용자를 위해 해당 주제의 도

서 해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서는 수집된 장서를 기반으로 해제목록을 작성하고, 큐레이션 서비스와 독서관련 프로그램, 정보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서는 선행연구(김소연, 2012)에서 언급된 주제인 자신에 대해 긍정과 반성, 안정된 정서함양과 심미성, 도덕적 판단과 실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계 맺기 등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큐레이션, 독서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서관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종 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 결과, 대학도서관 기관인증평가를 위해 도서관이 인성-지성-영성이라는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각종 평가를 위해 대학의 목표와 기존 도서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도서관은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세우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초소양함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기초소양함양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서 프로그램 기획시 대학의 소양교육 목표와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사서들은 교양교육 주제와 그 방법론에 관해 배우고 토론할 수 있는 자체적인 학습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독교대학 도서관은 인성교육 전담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담부서와 함께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및 수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문 결과 사서들은 학내 인성교육 전담부서와 협조하고 협력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알렌(Allen, 2014)은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도서관이 다양한 지원 부서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기독교대학에서의 인성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교목실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인성교육장으로서의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은 확고한 기독교 신학적 정체성 위에 기독교학생과 비기독교학생 모두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정대경, 2019). 도서관이 가진 정보자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성교육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일반적인 교리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접하게 함으로, 다양한 지식 가운데 기독교 인성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에 기반하여 기독교 신앙이 스며드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RC(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에 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을 위한 이러한 협력은 대학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의 프로그램 홍보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인성교육 서비스 개발을 위해 기독교대학 도서관간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사서들은 도서관의 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방법들, 다른 도서관 및 기관들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전수받길 희망하였다. 또한 사서들은 사서재교육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

으로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나 지역거점 기독교대학도서관을 꼽았다.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나 지역거점 기독교대학도서관이 거점기관이 되어, 인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방법들,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유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해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계에서는 신앙을 가진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기독교교육학 교수들이 연구를 통해 기독교대학 도서관의 소양교육 지원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이의 확산을 위해 문헌정보학 교수와 기독교교육학 교수, 현장 사서와 협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독교대학은 교육목표를 인성교육 중심으로 재정리하며, 기독교대학 본부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도서관 직원의 다른 부서로의 배치 및 신규 직원 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도서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설문 결과 인성교육 지원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항으로 사서의 절대적인 부족을 꼽았고, 도서관 예산 및 지원의 감소를 제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은 도서관의 사서를 충원하고 예산을 확대하며, 도서관은 자료를 활용한 인성 교양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과 교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 인성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한 최초의 연구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표본 크기가 한정적이며 성별, 연령, 지역 등의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적은 표본 크기에 의한 연구결과를 보충하기 위해 질적연구 방법(인터뷰)에 의한 기저 원인과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보충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generalization)' 대신 '현실 가능성(feasibility)'을 확보하려 노력하였다(Silverman, 2005). 그러나, 계속되는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보다 확대하고, 다양한 연구대상을 상대로 각 인구학적 특성(예. 경력, 지역, 학교 특성, 도서관 규모 등)에 따른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사서들의 요구와 인식을 파악하는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서들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재교육과정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서들이 희망하는 교육담당기관인 한국학술정보원, 국립중앙도서관(사서교육분과) 및 신학도서관사서협회가 상호협력하여 문헌정보학, 신학, 인성교육 전문가들의 복합교육형태로 교육내용과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별 내용, 교육주차, 교육시간 나아가 교안작성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끝으로, 기독교대학의 현장 사서들이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지자료로 대표되는

각종 참고자료들을 개발하는 연구가 국가 기초 ‘토대연구’사업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주제영역인 신학 및 기독교교육학뿐 아니라 문헌정보학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기독교 인성교육’과 관련된 서지 및 해제목록으로 대표되는 참고자료 개발, 인성교육에 필요한 단계별 독서교육에 적합한 자료 및 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고종호·정혜승 (2012). 대학도서관 독서교육에 관한 사례 연구: 조선대학교 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13, 23-41.
- 고종호·정혜승 (2015). 정부재정지원을 활용한 대학도서관 독서사업: 조선대학교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16, 81-98.
- 구제홍 (2007). 정보사회의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 **기독교교육정보**, 18, 35-68.
- 교육부 (2021).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3). **2023년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계획**. 세종: 교육부.
- 국립국어원 (2024).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검색일 2023.10.20.)
- 김대인 (2020). 기독교대학의 채플을 통한 기독교인성 교양교육 방안. **신학과 복음**, 9, 69-87.
- 김대인 (2021). 기독교인성을 함양하는 기독교 교양수업 연구. **신학과 복음**, 11, 67-91.
- 김성원 (2019). 대학생용 기독교 인성 측정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기독교교육논총**, 58, 311-338.
- 김소연 (2012). 한국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채플 활성화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34, 181-209.
- 김춘이 (2017). 기독교 대학의 기독교 교양 과목이 대학생들의 인성 개발에 끼친 영향 분석. **대학과 선교**, 33, 65-90.
- 김충만 (2016). 기독교와 인성(人性): 경성대학교 건학이념(“기독교 정신”)의 구현으로서의 인성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40, 83-104.
- 권현지 (2021). 대학도서관의 독서교육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비교과 프로그램 BOOKCLUB:Y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60, 229-262.
- 김정희 (2016).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 인성 및 기독교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 **기독교교육논총**, 46, 265-286.
- 김창의 (2004). 신학과 도서관.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편저).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30년사**. (pp. 59-76). 서울: 한국신학도서관협의회.
- 대학도서관진흥법 2015. 3. 27. 제정. 2015. 9. 28. 시행. 법률 제13222호. <https://law.go.kr> (검색일 2023.08.14.)
- 박미라 (2020). 기독교 인성교육을 위한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의 연구. **신학과 실천**, 71, 503-528.
- 박민수 (2009). 인성함양을 위한 기독교 교양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코메니우스 이론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17, 113-142.
- 박영철 (2012). 도서관인의 명암(明暗): 독서명문대학을 꿈꾸는 숭실대학교 독서인재프로그램. **도서관문**

- 화, 53(7), 31-34.
- 박향숙 (2022).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 **기독교교육논총**, 72, 317-339.
- 양주성(2014). 커뮤니티: 독서를 통한 코칭 서비스: H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도서관**, 73, 130-135.
- 오세홍 (2022). 기독교 대학합창단을 통한 대학생들의 인성함양 방안: 한남대학교 실레스트 합창단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51, 175-199.
- 유승민·유재봉·안은경 (2023). 노작과 서클 대화를 통한 기독교적 인성수업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76, 57-98.
- 윤성민 (2020). 인성교육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독교 융복합 교양과목의 방향성 제시. **신학과 실천**, 71, 457-478.
- 윤주영 (2015). 대학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 활성화 사례 연구: 동국대학교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16, 155-174.
- 이금만 (2011). 인격 재형성을 위한 신학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27, 125-154.
- 이경민 (2012). 대학도서관에서 대학생 독서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161-181.
- 이기훈 (2004). 제로 베이스 사고에 기초한 다원화 시대의 기독교 대학 인성교육. **대학과 복음**, 10, 77-101.
- 이병기 (2014).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의 프레임워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95-117.
- 이성아 (2021). 기독교 대학의 인성 함양 프로그램 성찰저널 분석 연구: K대학교의 밀알훈련 사례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66, 383-412.
- 이용재·이지옥 (2021).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분석 및 뉴노멀시대 도서관 발전전략**.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은성 (2017). 교양과목을 통한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전략적 운영 방안 탐색. **기독교교육논총**, 51, 101-124.
- 이종민 (2016).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기독교사립대학 인성교육교재 개발 및 효과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47, 313-347.
- 이지연 (2009). 학교도서관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353-380.
- 이현실 (2010). 대학도서관 독서치료 주제목록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79-192.
- 인성진흥교육법 2015. 1. 20. 제정. 2015. 7. 21. 시행. 법률 제13004호. <https://www.law.go.kr/LSW/>

lsInfoP.do?lsiSeq=167462#0000 (검색일 2023.07.10.)

- 임보람 (2019). 대학도서관의 협업 필터링 기반 도서 추천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E여대 독서 프로파 일링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20, 1-23.
- 임신일·김은영 (2019). 4차산업혁명시대 기독교대학 역할에 대한 교수인식. **신앙과 학문**, 24(1), 95-112.
- 정대경 (2019). 기독교 대학의 인성교육: 명지대학교 기독교 인성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40, 7-35.
- 정대근 (2023). 대학도서관 독서지원서비스를 위한 여가독서 적용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14(2), 1781-1794.
- 정연경 (2017). 대학도서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학생 독서 지원 서비스 방안 연구. **독서연구**, 43, 9-34.
- 조경덕 (2020). 소설 교육을 통한 기독교 인성 역량 함양의 가능성 고찰: 기독교 대학 교양 과목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5(4), 79-97.
- 조용훈 (2003).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통합연구**, 16(2), 193-224.
- 조용훈 (2016).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에 대한 한 연구. **대학과 선교**, 31, 227-258.
- 주연수 (2015).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초한 정서조절과 기독교인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4, 77-115.
- 최영근 (2016). 기독교대학의 복음적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하나님 나라의 성육신적 영성교육의 신학과 실행방안. **대학과 선교**, 30, 223-261.
- 최영식 (2014). 대학 도서관에서의 독서치료 서비스: H 대학도서관 중심으로. **디지털 도서관**, 74, 69-82.
- 한가숙 (2014). 대학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 고찰: 한남대학교 도서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사대도협회지**, 15, 1-22.
- 한만오 (2016). 기독교대학의 채플이 기독교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38, 179-208.
- 함영주 (2017).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의 기독교 인성 및 섬김 교육 효과분석과 기독교교육적 제언. **總神大論叢**, 37, 165-293.
- 허도화 (2016).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복음적 인성교육: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신학사상**, 173, 235-266.
- 홍현진 외 (2022). 공공도서관 사서 직무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5-30.
- Allen, S. (2014). Towards a conceptual map of academic libraries' role in student retention. *The Christian Librarian*, 57(1), 7-19.
- Harrell, C. & Bradley, A. (2009). *Data collection methods: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focus groups*. Santa Monica, CA: RAND Co.
-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Silverman, D. (2005). *Doing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handbook (2nd ed.)*. Los Angeles,

CA: Sage.

Smith, G. A. (2000). A philosophy of christian librarianship. *The Christian Librarian*, 43(2), 46-51.

Smith, G. A. (2002). The core virtue of christian librarianship. *Faculty Publications and Presentations*, 1. Retrieved from <https://core.ac.uk/download/pdf/58820418.pdf> (2023.10.2.)

Terhune, S. (2006). The impact of the christian faith on library service. *The Christian Librarian*, 49(2), 91-100.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도서관 역할에 관한 사서 인식 연구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Roles of Libraries in Supporting 'Character Education' at Christian Universities

이성숙 (충남대학교)

구정화 (한남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진리에 기초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 인성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는 대표 부속기관 중의 하나인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전문 사서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였다. 이는 기독교 대학 사서들의 인성교육 및 지원에 대한 인식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서 재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법'과 '면담법'을 이용하여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기독교대학에서 수행해야 할 인성교육의 영역에 대한 사서 인식', '신앙과 직업과의 관계(세계관 및 직업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기독교대학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에 대한 인식', '도서관이 인성교육을 지원함에 있어 걸림돌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요구(재교육 내용)'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설문조사하고, 응답에 대한 이유와 기저 배경에 대한 내용은 심층면담법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성교육 지원에 있어 도서관은 인성교육 전담 부서와 협력하되 동등한 위치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인성교육과 관련된 특수 주제장서 수집과 큐레이션을 꼽았고, 그 장서를 활용한 교육서비스인 독서교육 프로그램과 정보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서비스와 교육장소를 지원하는 것이 도서관의 주요서비스이자 역할이라 인식했다. 도서관의 인성교육지원에 있어 가장 큰 제한점으로 외적으로는 전문사서의 부족과 제한된 예산을, 내적으로는 사서 자신들의 인성교육 의미와 이를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몰이해를 한계로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서 재교육 과정에서 인성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성공적이고 구체적인 역할과 서비스 사례들을 소개받고 실행방법들을 전수받길 희망했다.

연구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독교대학 인성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도서관 역할에 대한 재고, 사서 재교육 과정의 내용과 지원 방향들이 제안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보충할 후속연구 주제들과 연구과제들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기독교 인성교육, 사서 인식, 도서관 역할, 기독교대학, 기독교대학 도서관, 사서 재교육